

벤투호 훈련 “더 강하게, 더 빠르게”



4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파주NFC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이 훈련 중인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

“더 강하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이틀째 훈련에 돌입했다. 전날 가볍게 몸을 푸는 수준이었던 훈련 강도가 올라갔다.

벤투호는 4일 파주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2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치른 손흥민(토

트넘)과 3일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른 이승우(엘라스 베로나)를 제외한 23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손흥민과 이승우는 이날 밤 11시 입소했다.

전날 가벼운 몸 풀기로 컨디션을 점검한 대표팀은 이날 훈련 강도를 끌어올렸다. 훈련 현장을 공개한 전날과 달리 이날은 20분만 보여줬다. 선수들이 피지에 큰 사각형을 형

코칭스태프들 힘·속도 강조 선수들 독려
7일 호주전 후 11일 서울서 이란과 친선전

성한 상태에서 빠르게 패스를 주고 받는 훈련이 이어졌다. 코칭스태프들이 끊임없이 “더 강하게 차라”, “더 빠르게 보내라”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기술과 속도를 중시하는 벤투 감독의 컬러가 잘 드러난 훈련이다. 벤투 감독은 전날 “선수 선발에 있어 기술을 최우선시 했다”고 밝혔다. “공격 진행 시나 수비 전술을 시행할 때 선수들의 전술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대표선수 선발 배경을 전한 바 있다.

빠른 패스는 공격 진행 시의 속도 동시에 수비에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재료가. 빌드업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벤투의 축구에선 더욱 중요하다.

벤투 감독이 꾸준히 “리그에서의 스태보다 선수들의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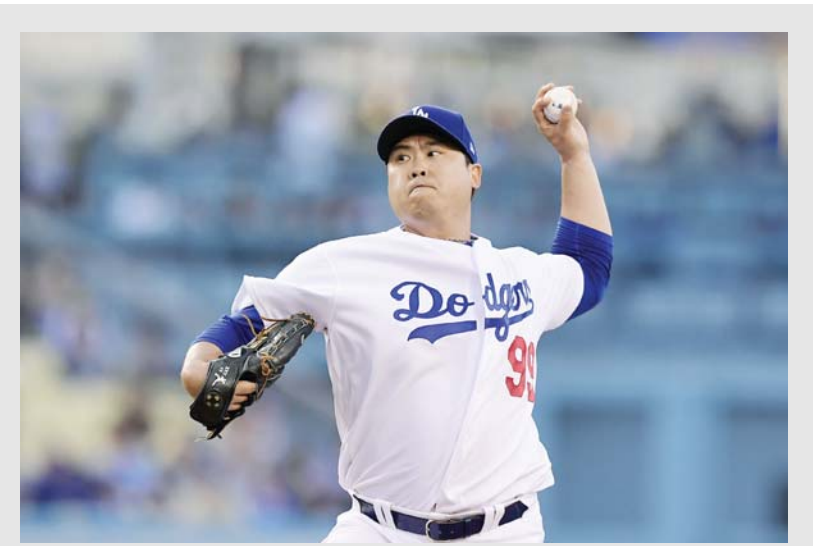
않다.

지난달 27일 25명의 선수단을 선발하면서 “스텝으로는 나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어느 리그든, 어느 정도의 숫자를 남겼든 선수 특성을 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특성이란, 팀의 스타일에 맞는다는 이야기다.

결국 여기 있는 선수들은 벤투의 축구에 적응하기 필요없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김태환, 김보경(이상 울산)도 기술과 속도를 갖춘 선수들이다.

물론 기본적인 훈련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빈도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벤투 감독도 “선수들의 상태를 보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6일 부산으로 가 7일 호주와 경기를 치른다. 11일엔 서울에서 이란과 친선경기를 펼친다.



류현진, ‘이달의 투수상’ 품었다

5월 최고의 투수는 류현진(32·LA 다저스)이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4일(한국시간) “류현진이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그만큼 찬란한 5월을 보냈다.

류현진은 5월 6경기에 나와 5승무패 평균자책점 0.59를 기록했다. 45%이닝을 던지면서 단 3점만 내줬다. 홈런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 36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볼넷은 3개만 허용해 놀라운 제구력을 자랑했다. 이닝당 출루허용율(WHIP) 0.67, 피안타율 0.177로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다.

오렌지카운터레지스터에 따르면 류현진은 한 달 동안 5승 이상을 거두며 평균자책점 0.60 이하, 탈삼진 36개 이상을 기록한 다저스 소속의 네 번째 투수다. 앞서 페르난도 발렌수엘라(1981년 4월), 돈 드라이스델(1988년 5월), 밥 루커(1908년 6월·1910년 9월)가 이를 달성했다.

출발부터 좋았다. 5월 첫 등판인 2일 샌프란시스코 지이언츠전에서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는 9이닝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뒀다. 2일 샌프란시스코전 2회부터 28일 피츠버그전 1회까지 32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5월 마지막 등판인 31일 뉴욕 메츠전도 7%이닝 무실점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 기간 6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QS;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하고 5경기에서 7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이닝 이터로서의 면모도 확실하게 드러냈다.

류현진은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 이달의 투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한국인으로는 박찬호(은하)에 이어 두 번째다. 박찬호는 LA 다저스 소속이던 1998년 7월, 6경기 4승무패 평균자책점 1.06의 성적으로 이달의 투수상을 따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한국인 타자들 중에서는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두 차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바 있다.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시절인 2008년 9월, 텍사스로 이적한 뒤인 2015년 9월 이달의 선수로 뽑혔다.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축제 성료



담양군 B팀이 우승 상상을 마치고 선수들과 장귀남(전라남도협회)회장 그리고 김용근(담양군협회회장)감독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제28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축제가 지난 3일 영암군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전라남도체육회 주최로 열렸다.

개회식에 참석한 전동평 영암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기(氣)의 고장 영암을 찾아주시는 게이트볼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영암의 기를 받아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 하여 멋진

고 즐거운 하루되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의 주관을 했던 장귀남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회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서 66개 팀 500여 명 시·군 선수 격돌

우승 담양군 B팀, 준우승 신안군 B팀, 공동3위 여수 A팀·강진 A팀

장은 “전남 게이트볼 발전과 기술 향상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영암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암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각 시군을 대표한 66개 팀 500여 명의 출전 선수들은 지역의

명예를 걸고 예선전부터 치열한 격돌이 이어졌다.

결승에 진출한 담양군 B팀(윤승춘 주장, 정상재, 이상섭, 김석봉, 광광훈, 장귀남 선수)과 신안군 B팀은 30분 경기 내내 관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 끝에 결국 담양군 B팀이 우승기를 거머쥐는 영광을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담양군 출전 선수들은(담양군 외주리 마을) 단일 팀으로 출전선수 모두가 평균 연령 82세가 넘는 고령자들로 구성돼 노익장을 과시하는가 하면 운동으로 달린 건강한 모습에 기량까지 뛰어나 고개를 흔들게 했다.

담양군 김용근(담양군게이트볼협회 회장)감독은 “농촌 시골마을에 많지 않은 회원들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던 성과라”며 “오늘의 이 영광은 선수들 물론, 외주리 마을 주민들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출전선수 중 최연소 30대부터 영광군 팀 정태주(1924년생)최고령 선수 96세까지 경기에 임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박수와 함께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로부터 고령자 시상 상패와 시상금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황의조 “컨디션 문제 없다, 매 경기 골 넣고파”

일본 프로축구 리그 감바 오사카에서 골 가뭄에 시달리는 황의조가 대표팀 경기를 부진 탈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근 황의조는 소속팀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 리그 2골에 그치고 있다. 경기당 슈팅수는 2.4회로 리그 20위지만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

황의조는 4일 파주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 오전 훈련에 앞서 “경기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컨디션에 문제는 없다. 한 골 들어가면 더 잘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

다”면서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소집이 (부진 탈출의) 충분히 좋은 기회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정협과 경쟁에 대해선 “(이)정협이 영도 좋은 컨디션인 것 같다”며 “좋은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공격수이기 때문에 매 경기 골을 넣고 싶다”면서 “경기에 나선다면 집중해서 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청새마을, 회현사, 선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